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새해 0시 송구영신 예배

새해가 온다. 희망찬 새해가 온다.

시간이 가는 것인가 사람이 가는 것인가 기차여행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 보면 전봇대가 확확 지나간다. 실은 전봇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간 것이다. 시간이 지나 갔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정확하다. 잘난 이도 못한 이에게도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살아왔다. 시간도 피조물이다. 하나님만 그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고 주신다. 이제 2002년도는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 2003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을 출발해야 하겠다.

2003년 1월1일 0시에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열자. 이날 0시 예배를 위해 30분전 예배당 살내는 소동이 된다. 빛되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회개와 결심의 기도시간이 이어진다. 0시 정각에 빛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신년 0시 예배는 모든 것을 새로 출케 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장로·권사 은퇴, 장로 안식년 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 하시다가 교회 헌법이 정한대로 만 70세가 되어 은퇴하시게 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3년 일년간 안식년을 맞이하는 장로님들을 위한 장로·권사 은퇴, 장로 안식년 감사예배를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리게 된다.

오늘 은퇴하시게 되는 분은 협동장로로 계신 김사무엘 장로와 시무권사인 김종자 권사, 김계순 권사, 유복달 권사, 김해자 권사 최정옥 권사 등 5분으로 이분들은 서울 교회 은퇴 장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된다.

안식년을 맞는 장로는 최중시, 윤봉준 장로 두 분이다.

신년감사 예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 및 순결 서약식 가져-

우리교회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는 1월5일 I, II, III부 예배를 새해의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리고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함께 갖는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기를 서약하는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순결서약식의 오리엔테이션은 12월31일 오후 8시부터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아직 순결서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자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공동의회는 III부예배후 본당에서 가지게 된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 교회학교 별로 진행

우리 교회 교육 I, II국에 속한 부서의 졸업(수료)식이 오늘 1부예배 후 부서별로 있다.

졸업 후 등반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고 미래가 말씀으로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자

주간 성경공부 수료자 2002 전도자 시상식 -오늘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002년 일년간 매주일 주보와 함께 배부되는 주간성경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여 수료하는 성도들과 올 한해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전도자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및 전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03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간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가하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간 성경공부 수료자>

- 1 교구: 김경애 박정섭 오길탁 임옥군
- 2 교구: 배영애 이자혁 원복순 전기섭 최형열 최순주 최규초 오충래 김경희 이갑연
- 3 교구: 신정일 윤성남 이경구 임인숙 양옥자 최일춘 허인숙 김인숙 김영애 이순래 정병무
- 4 교구: 김병숙 김복녀 김혜경 유명석 이승민 정경자 최 완 홍광숙 임훈규
- 5 교구: 김만선 백수남 박창희 유후자 이광열 최희인 이민화 김중근 최혜순 이남복 최근자
- 6 교구: 김경옥 장영일 한금희 이영옥 이영희 서명조 김효순 최용걸
- 7 교구: 윤운식 이부자 임윤자 함은희 임순자
- 8 교구: 김현주 여현진 강애자 고영철 최금자 박이준 권명자
- 9 교구: 강정옥 김진숙 서춘식 유 신 윤봉준 조명녀 조상의 최경애 최정숙 이점숙 송옥혜
- 10 교구: 박연순 윤찬오 이옥현
- 11 교구: 백영희 장정화 전배호 정연택 조옥심 조정옥 이옥희 노선균 이흥기
- 12 교구: 김선의 김형택 여옥기 정희순 서희숙 임상현 김대용 전원순 한일동
- 13 교구: 탄금의 인순창 김은태
- 14 교구: 박중숙 유성임 김종자 심재을 한광마 이상 105명

<2002 전도현황>

- 1등 - (14명 전도) 김은태
- 2등 - (5명 전도) 강석우 한종표
- 3등 - (4명 전도) 서경학 신현이 이용선 인대진 임옥군 아정자 (6명)
- 4등 - (3명 전도) 김민자 김다희 유관도 이순희 이영숙 최광성 (6명)
- 5등 - (2명 전도) 김대영 김사무엘 김영철 김세재 김정순 김경애 김정임 김희진 문성기 박정섭 배창호 송영주 심상필 양옥자 양춘경 오원실 왕경래 원복순 이동만 이상호 이선영 이은진 이지민 전하미 정경실 정여연 진교남 70인 전도대 (28명)
- 그외 1명을 전도한 성도는 88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100교회 후원현황(12월 29일 현재, 다음호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84	작실교회	인희선	도르가
85	금선교회	송송운	김권집·왕경애
86	백도교회	이기성	조명준
87	새 에루살렘교회		이반생·박경희
88	새틀교회	이역일	시영희
89	내도중앙교회	정장연	교역자회·무지개회
90	베다니교회	이인수	이완영·박연순
91	성광교회	강내봉	이임희·백영희
92	산성교회	연광희	김태기·윤문자
93	밀양예수교회	박태용	양춘경·이인숙

70인 전도대 모집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지고 봉사 할 70인 전도대원을 찾는다. 희망자들은 1월2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접수바란다.

소신지서 강해-호세아

한 나라의 멸망

(호세아 13장 1 - 16절)



이중윤 목사

이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이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것은 시인했으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는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저들의 영혼의 부패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롬 6:23)입니다.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를 소멸시키고 마침내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소멸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펡글러는 '서구의 몰락(The decline of the West)'에서 서양의 역사는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삶에서 문명의 발전을 유추하면서 한 개인이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해서 쇠퇴하며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역사도 반드시 생성 시기와 성장 시기가 있으나 쇠퇴할 때가 있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명에 개인의 삶을 적절히 적용했지만 역사를 죄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죄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스펡글러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가였다면 그는 역사에 죄 문제를 적용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역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역사의 구원 문제까지도 제시했을 것입니다.

1.교만의 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다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1절).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기로 망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한 나라 역시 죄 값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죄의 값으로 인하여 개인 뿐 아니라 한 국가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원죄를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죽음을 자초하였습니다.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기 전에 먼저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것은 시인했으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는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저들의 영혼의 부패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인 므낫세보다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거꾸로 놓아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왕성한 나라를 이루어 북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알은 농업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신인 바알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락의 우상, 이데올로기 우상, 자신을 하나님 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 우상, 자식이라면 하나님도 버리는 자식 우상,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핑개쳐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미국의 모든 학교는 월요일 아침에 예배로 학업을 시작했는데 카톨릭 신자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가 없이 자란 아이들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몰락주의 혹은 경쟁은 죄를 낳습니다. 자신 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시기하고, 처진 사람은 천대하고 멸시하므로 인해서 죄를 면할 길이 없게 되며 이 죄 값이 결국은 문명을 쇠퇴하게 하고 마침내는 국가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멸망할 사람이나 국가는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습게 알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출발점은 여로보암이 뿔뿔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2.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아합 왕이 외국에서 바알 신상을 들여오고,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쟁개만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2절).

이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순은 일인데 이스라엘은 사람도 아닌 스스로 만든 물질 앞에 절을 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3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7절).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처벌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11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녀 때문에 겹을 보러 다닌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15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제발 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먹어 준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6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먹고 배부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의 허리띠를 벨 수 있습니다.

3.배은망덕의 죄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9절)

구원자를 대적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을 섭섭하시게 해서 안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나라"(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임신을 했으면 해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에는 모든 일이 순리가 아닌 역리로 작용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15절).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 사회가 흔들리는 이 때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년 서울교회 10대 뉴스

찬란한 순교의 언덕 갑바도기아

신동기 권사(12교구)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빛과 삶
인생들이 왔다가
저마다 발자국을 남기고

삶과
죽음
부활의 준엄한 시간속에
인애가 저물어 간다.

얼마나
얼마나
소리없이 울었던가
흐르는 눈물이 굳어져
갑바도기아 산을 이루고

그 눈물이
붉은 물결 되어
우리 심장에
생명으로
출렁인다.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 같은
울음당어리 갑바도기아

죽은 것 같으나
산 지들의 함성!
그 피속에 뛰어들어
산마다 등불을 켜들은
거룩한 신부들이여!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당신의 임재로만
해가 뜨고
당신의 죽음으로만
꽃을 피워내는

찬란한 순교의 언덕
갑바도기아
이천세번째 새벽이
우리 가슴에
소리치며 부어온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은둔했던 터키의 갑바도기아-동굴교회 기도처의 전경

교회는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필수 배제 문제와 개인 신앙 문제 등을 집중 질문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후보들의 신앙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교회는 지난 97년 대선 때도 당시 대선 후보를 초청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기독교 교도소 설립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6. 돌 성경 제막식



지난 7월 28일 우리교회는 예배당 현관 옆 본당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앞에서 돌 성경 제막식을 가졌다. 이 돌은 경기도 포천군에 두리석재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가로

2.4미터 세로 1.6미터 높이 0.55미터, 무게 4톤 짜리 화강암이다. 성경을 펼친 모양으로 한쪽엔 십계명, 다른 한 쪽엔 주기도문을 새겨 넣었다. 돌 성경은 예배당을 찾아오는 성도들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교회의 확고부동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7. 태풍 피해 국민 돕기 수재의연금 전달

지난 8월 31일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재난을 만났다. 이에 우리교회는 이를 복구하는데 동참하고자 9월 2일부터 피해국민을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을 접수해 1차로 의류와 침구, 가전제품 등 3천여 점을 모아 김천 백마교회와 울곡 교회 등에 전달했다. 이들 교회는 우리교회의 농어촌 100교회 지원사업으로 돕던 교회로, 이번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리교회의 도움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8.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 번역 위한 번역위원회 구성 제안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재 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번역위원회 구성을 결의토록 했다. 이 목사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또 니케아 콘스탄틴 신앙고백서를 우리 헌법에 수정 삽입토록 했다.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 중심의 신앙고백서로 완벽하지만 성령론에는 문제가 있어 동, 서방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주후 589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 가운데 성령에 대해 아버지과 아들에게서도 나온다는 내용을 첨가해 우리 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미 공포한 헌법은 3년 이내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해 일단은 받되 확정은 3년 후로 미루기로 했다.

9. 대학 청년부 토요 연합 집회 시작하다

지난 4월 6일부터 우리교회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연합집회를 열었다. 젊은이들이 주일 예배 봉사에 전념하는 대신 토요일에는 청년들의 문화와 정서에 초점을 맞춰 열린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행사가 기획됐다. 이를 위해 대학·청년부는 특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목회 부흥에 성공한 타교회의 사례를 3개월간 연구한 뒤 4월부터 토요집회 운영에 들어간 것.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청년부는 토요일 집회로 옮긴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대학부의 경우 토요집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획기적인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 장로교 신학회, 군선교 신학회 창립 주도하다

분열된 장로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 각 교단 신학자들이 신학적 연합을 모색하기 위한 장로교 신학회를 우리교회에서 창립하였다. 이종운 목사는 이 모임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바른 지도를 위해 군선교 신학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이종운 목사가 피선되었다. 정리: 김민철(편집부)

1. 송구영신예배 실황중계

1월1일 우리교회의 송구영신 예배가 기독교TV와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본당 2,3,4층의 3300석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모습이 기독교TV와 인터넷 방송인 C3TV의 화면에 담겨 실황으로 중계된 것. 고평한 적막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지다 강대상의 일곱 촛대에 불이 밝혀지고 핸드벨과 트럼펫 소리에 맞춰 예배가 시작했다. 이종운 목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새해에 성도가 받을 세 가지 축복(온전케, 굳건케, 터가 견고케 되는 축복)에 대해 설교했다.

2.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



아시아 20개국의 125명의 교회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로잔대회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싱가포르와 스리랑카, 네팔,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 기독교계에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 KIMCHI세미나를 통해 세계 교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지난 96년엔 로잔의 공인기수로 인정되기도 했던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올해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 대회를 주관하게 된 것이다.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소모되는 비용 전액을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충당했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는 놀랍고도 이례적인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 대회에서 이종운 목사는 아시아 로잔위원회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3. COP (Concert of Prayer)운동 출발하다

COP운동은 기도 동역자들이 향후 7년 동안 매주 한차례씩 15분에서 30분간 모여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운동이다. 한 팀에 많게는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모일 때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개인신앙과 관련된 기도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기도제목 리스트를 만들어 침사를 해가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다락방장 공부 시간에 이종운 목사의 제의로 온 교회에 확산되었고, 현재 22개의 COP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4. 준전임 교육 목사(전도사)제도 도입

우리교회는 1부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 교육을 부목사나 신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담임 목사의 책임하에 목양하는 독특한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는 예배의 경건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서 각 교회학교별 사역자들이 전임이 아니어서 주중 프로그램과 심방이 거의 안 이뤄지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교회는 전임교육목사(전도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부로 모두 5명의 준전임 사역자가 청빙됐다. 조대영 전도사와, 김희정 전도사, 농아인 교육을 맡은 임규현 목사, 대학부를 맡은 장재훈 목사, 그리고 청년부 담임 이태훈 전도사 등이다.

5. 제 22 회 목회자세미나 대선 후보자 초청



신앙과 애국이란 주제로 9월 첫 주부터 진행된 제 22학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 가운데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씨 등 3명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최수정(5교구, 사랑부 교사)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축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항상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는 올 한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특히 올 봄, 공군 장교로 입대한 동생 광혁이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집 근처의 부대에 근무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어머니와 동행한 몽골 단기선교팀에 속해 선교했던 일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작은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크나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7박8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님이 마련해주신 시간 속에서 선교와 신앙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선교사역의 기쁨을 통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부 친구들과 같이 호호하며 반주로도 봉사케 하신 또한 감사 드립니다. 사랑부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형제와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봉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 속에 더 많은 말씀과 찬양 안에서 생활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 또 감사 이영조 집사(11교구)

한 해를 보내며 올해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을 장년부 교사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셨던 일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일 저녁 뜨거운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며 다가올 일주일의 생활계획표를 그리며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나갈 큰 용기를 얻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겠지만, 올해는 아내 이영자 집사가 권사의 임직을 받았고, 딸 송선이가 오르간 석사 졸업 연주회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막내인 민웅이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된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내가 대학 입시를 다시 도전하겠다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고생이 걱정스러우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 믿으며 내년 한해가 막내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암송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탔던 일도 감사합니다. 바쁘고 긴장된 직장생활가운데서 출퇴근 길에 말씀과 함께 했던 일들은 행복한 추억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 소외된 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해를 보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배유리(청년부)

일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 뿐입니다(II)



지금은 누가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내게도 처음의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싫어 청년부 활동을 안 하려고 기를 쓰던 적이 있었다. 요리조리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회생활을 연명하던 나는, 결국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정윤돈 목사님의 강권적인 권유에 떠밀려 지금의 청년부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아마 목사님의 그 끈질긴 권유가 아니셨으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적응하는 것이 귀찮다'는 핑계로, 교체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부를 밖에서 보는 것 보다 직접 안에서 부딪혀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점과, 교제 안에서의 생활이 믿음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이다.

길에서는 어렵게만 보이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청년부의 새 식구를 정성스럽게 맞아드리는 일부터, 하계/동계수련회를 통해 보여준 청년의 그 순수함과 놀라운 섬김의 모습들,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보여줬던 우리 서울 교회의 장래의 청지기로 예비 된 모습들...모두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귀한 모습들이었다.

한해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써 보려고 하니 이 짧은 지면에 그때의 그 감동들과 감사함을 하나하나 다 읊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 감사함을 갈을 길은 오늘도 예전의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교회 안의 청년들을 강권하여 청년부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는 감사함으로 찬양드릴 수 있는가? 심상의 집사(8교구)

"여보세요? 여기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심상희씨! 수술 날짜를 9월 9일로 당길 수 있는데 5일까지 입원수속 가능하신가요?" "네? 아! 예... 가족과 의논하여 5시까지 연락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질병으로 빈혈과 통증이 심하여 이제 는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웠다. 수술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허망하게 떠올랐다.

9월 18일 예정된 독창회를 비롯해 마무리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지금일까? 아들 승업의 학교문제 직장 등등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자신을 바라보며 수술 도중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했다.

수술 전날 윤영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큰 위로를 주셨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나의 모습은 참으로 불신자와 다름없이 가련하였다. 관장과 주사처치 등으로 불편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수술실로 들어가 5시간만에 다시 희생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염려했던 압도 아니었으며 60여 일간 쉬면서 이모저모 나의 삶을 돌아보

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얻었다.

이번 입원기간 동안 부모형제, 여러 성도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중보기도와 문안을 받으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였다. 이토록 절망적인 죄인을 다시 살리고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한다.

이제 곧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래하고 일하도록 절절한 시기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으며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12월 1일은 12주만에 다시 찬양대에서 주께 찬양드릴 수 있음이 감격스러웠다. 힘껏 찬양하다보면 등에서는 진땀이 나고 목소리도 쉬 피곤하지만 3주 쯤 무사히 계속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22일 성탄절 음악예배를 위해 칸타타 "새벽 별"을 연습하며 아름다운 음악과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큰 감동과 감사를 드렸다.

어린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30여 년간 찬양대로 봉사하였지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지를 질병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며 이전의 기도와 더불어 영감과 성령이 충만한 성악가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의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만이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새해 첫주부터 예배시 첫 번 부르는 경배 찬송을 4장으로 한다.



지난 1년간 순례자를 위하여 기도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서울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소식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순례자일동

동정

■ 초동부는 학생회 22일(주)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다 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회장: 최승우 부회장: 박마리아 부회장: 최윤성

■ 금주의 식사: 이임희 집사 · 백영희 권사 가정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와 감사가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